

김영진·전갑수·이정권씨 시민대상 수상

<학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광주시 명예 높이고 지역발전 기여

광주시 시민대상에 김영진(65)·전갑수(59)·이정권(47)씨 등 3명이 선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33회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학술대상을 수상한 김영진씨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위암과 대장암의 발암과정과 유전자, 수술에 관계되는 31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102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25권의 의과학 교과서 저술에 관여하는 학문적 업적과 위암 5천, 대장암 3천 등 진료실적을 비롯해 암의 복막전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방법 연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진



전갑수



이정권

광주시 배구협회장인 전갑수씨는 체육발전기금 후원과 대학과 산업팀 창단을 지원해 배구선수 육성과 체육인재 발굴에 기여했다. 또 2015년 국제대학배구대회와 10여개 대회를 개최하며 전문체육분야와 생활체육분야에서 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체육대상을 수상했다. ㈜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대표이사는 신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생산성 향상, 고용우수기업 인증·청년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

다.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와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사회봉사부문과 예술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33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대상은 광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수상자로 선정해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자랑한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138명의 시민과 8개 단체가 상을 받았다.

올해 시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전남대 출신 이수경 교수 미국 2개 석좌교수 동시 임명

우리나라 여교수가 미국에서 두 개의 석좌교수직에 동시 임명돼 화제다. 전남대 출신 이수경 교수는 뉴욕주립대-버팔로 생물학과에 '제국혁신 석좌교수'로 초빙받는데 이어, 최근 또다시 같은 대학에 개설된 '옴-피-바알 석좌교수'에 초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이수경 교수는 66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뉴욕주립대 본부까치려면 기금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를 새로 초빙하거나 저명한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국혁신 석좌교수' (Empire Innovation Professor)로 초빙됐다. 그는 또 2004년 별세한 옴-피-바알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과 뉴욕주립대-버팔로가 공동 기금으로 신설한 '옴-피-바알 석좌교수' (Ohm Bahl Endowed Chair) 직의 초대 석좌교수로도 임명됐다. 옴-피-바알 교수는 뉴욕주립대-버팔로 생물학과 초대 학과장으로, '임시 자기진단 키트'를 개발한 저명한 과학자이다.

이로써 이수경 교수는 오는 9월부터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생물과 정교수'이면서, 제국혁신 석좌교수이자, 옴-피-바알 석좌교수'라는 세 개의 공식 직함으로 불리게 된다.

이수경 교수는 전남대 의대 대학, 석사와 자연대 생물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소아마비 백신개발로 유명한 Salk 박사가 설립한 연구기관(Salk, 미국 샌디에고)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거쳐 만 28세인 2004년 베일러 의과대학(텍사스 휴스턴)에서 이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초빙돼 국내 언론에까지 소개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만 38세의 나이로 오레곤 의과대학(오레곤 포트랜드)에서 영년직 정교수로 승진할 정도로 신경발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광주조달청,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지숙)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16일 광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올해 39주기를 맞은 민주영령을 추모했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보해양조 임직원,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임직원들이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담실은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광주정신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배 후에는 민주묘지를 찾은 탐방객들에게 매실음료를 나눠주고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쳤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농협나주시지부, 농업인 공기청정기·마스크 전달 농협나주시지부(지부장 이상진)는 지난 15일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에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영농철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이 많이 모이는 교육장 또는 조합원 사랑방에 공기청정기 14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2만 800개를 지원 야외농작업을 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나주=황충환기자 h645090@srb.co.kr



호남대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 장학자랑 호남대(총장 박상철)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화합과 우정의 장이 펼쳐졌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한 곡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임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씨 광주 동구서 ‘오월인문학’ 강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61)씨가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총칼보다 강한 노래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15일 대회의실에서 오월인문학 강의를 열고 김씨를 초대해 강연을 펼쳤다. 강의에 나선 김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면서 ‘한 곡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5·18 직후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빠진 광주 시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며 “1982년 4월 중순 황석영씨와 광주 문화예술인이 함께 ‘오월 광주에 대한 책무를 다하자’며 노래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다. 여기에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다른 노래극을 만들 당시 노래극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쓰여진 곡이었다”며 “황석영씨가 서재에서 책 한권을 꺼내와 쓴 글이 곡의 가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작곡가는 이날 5·18 당시 상무관에 안치됐던 희생자들을 본 후 작곡한 노래인 ‘검은 리본 달았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전남도의사회, 5·18직후 국군통합병원 위문품 전달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직후 전라남도의사회 반상진 회장(현 반상진 이비인후과 원장)과 임원들이 부상 군인들과 시민들이 입원해 있는 광주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을 방문, 위문품 200여개를 전달했다.

사진=당시 전라남도의사회 김주환씨 제공



광주시 어르신생활체육축제 성료 광주시체육회가 16일 오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제14회광주시장기 어르신생활체육축제를 열었다. 이날 5개구 어르신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i6505@srb.co.kr



광주 교장들, 안중근의 독립 혼 서린 유적지 연수

광주 일선 학교교장과 교사들이 최근 안중근 의사의 독립 혼이 서린 하얼빈 등 만주와 연해주 일대 항일 연수를 다녀왔다.

광주교육연수원(원장 김동일)은 지난 5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관내 학교장 26명(17기)을 대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동북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항일 연수 대장정을 실시했다. 해의 항일연수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운영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연수는 교장 1팀, 교감 1팀, 교사 2팀으로 나눠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전연수와 현지연수, 사후연수 방

식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 산재한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잊혀져 가는 독립운동가들의 족적을 따라가며, 그분들의 활동과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올해는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궤적을 좇아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위해 기차를 탔던 블라디보스토크, 단지동맹을 맺었던 크라스키노, 하얼빈역 의거 현장,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위순 감옥이 자리한 대련 등을 둘러봤다. 연수원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는 교원들을 위해 이를 원격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며, 3기 교사팀의 연수 때는 촬영팀이 동행할 예정이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성과제고 워크숍 개최

순천시 이틀간 창작자 등 80명 참여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성과제고 워크숍'이 15일과 16일 이틀간 순천 일원에서 열렸다.

창작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의 2차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창작자들 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상호 간 창작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커뮤니티라운지에서 개최된 첫날 워크숍은 ▲2차년도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공유 ▲G-태그 프로그램 우수참여자(5인) 성과발표 ▲그림책 콘서

트(문화예술단체 풍선검) ▲콘랩 콘텐츠 투어 및 창업콘서트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콘랩 콘텐츠 투어 시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캐릭터 만들기', '크로마키 스튜디오'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와 흥미를 이끌어 냈다.

이틀째인 16일에는 순천만 S호텔에서 재능기부 플랫폼 서비스 기업(주)측 여수아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순천정원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인 관광·예술·정원 기반 콘텐츠 상품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철환기자 repo333@srb.co.kr

무등 게시판 Tel: 606 7725 e-mail: mdlbo@srb.co.kr Fax: 606 7796-7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B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양

결혼 ▲김덕규(한국취업뉴스클럽 대표)·정은숙씨 아들 호선군, 정일식·김해경씨 장녀 지혜양=18일(토)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성경호·강해순씨 장남 재현군, 윤철웅·김길남씨 장녀 희진 양=25일(토) 오후 1

시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김종원(KBC광주방송 영상취재부장)·이효남씨 장남 하연군, 이창주·신연숙씨 장녀 예진 양=25일(토) 오후 4시,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베일리홀 ▲신활수·조점례(리치콜드 예셋 이사)씨

아들 용희군, 송영식·방성미씨 딸 아름양=6월 15일(토) 오후 1시10분 엔타스파티&웨딩 8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주대로 593(구월동 1128-3)

안내 ▲100원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제20회 장학금 전달식=19일(일) 오전 11시30분 서창농협 3층 회의실(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연락처 김희만(011-666-0660)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13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 062-232-1375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식서비스(주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무료제공·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062-233-0468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